

올해는 더 뜨겁다... 신작부터 체험존에 거대한 라인업까지!

부산 벡스코서 역대 최대 규모 42개국 1037개사 3328부스 '서브 컬처' 등 부대행사 강화 토크쇼 등 특집프로그램 운영 해운대서 드론쇼·불꽃놀이도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23'가 16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지스타 2023'은 부산 종합전시관 벡스코에서 열렸다.

지스타2023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을 맡아 오는 1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올해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전 세계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년(2947부스) 대비 12.9% 확대된 3328부스가 마련됐다. 과거 최대 규모였던 2019년(3208부스)를 넘어 역대 최대 성과다.

특히 올해는 9년만에 부스로 참가하는 엔씨소프트와 스마일게이트, 2년 연속 메인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 내년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드래곤플레이, 넷마블, 구글플레이, 크래프톤 등이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존으로 참가하면서 관람객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이날 오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지스타 개막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가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대거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구현범 엔씨소프트 부사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구현범 엔씨소프트 최고운영책임자(COO), 권영식 넷마블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지원길 스마일게이트 RPG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개막식 후 진행된 VIP 투어에서 CEO들은 위메이드, 넷마블,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RPG 등 부스를 둘러보며 작품들을 살피고, 답소를 나눴다.

김택진 대표는 "게임 IP의 본질적인 재미가 보여지도록 집중했고 이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인조이는 아직 개발 초기인데 가능성이 많은 게임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9년만에 장르가 모두 다른 신작 7개를 선보이며 지스타2023에 부스로 참가했다.

올해 지스타는 그동안 게임 하위문화로 분류됐던 '서브컬처'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올해 도입된 '지스타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은 컨벤션 홀 3층(그랜드볼룸)과 야외에서 B2C 전시 시간과 동일하게 4일간 운영된다. 그

랜드볼룸 내 설치된 지스타TV 무대와 페스티벌 전용 무대를 활용해 토크쇼 및 퍼포먼스 등의 특집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상시로 운영되며, 굿즈 마켓 및 전시존도 함께 구성된다.

벡스코 이외에도 부산 주요 지역을 활용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된다. 지스타 메인스폰서인 위메이드는 18일 저녁 8시부터 약 30분 간 해운대 광장과 해수욕장 일대에서 라이팅 드론쇼 & 불꽃 피라레를 진행하는 '위메이드 페스티벌 나이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부산 서면에 소재한 부산 이스포츠경기장에서는 '지스타컵 파이티즈스피릿 2023'이 18~19일 5개 종목의 종합 격투게임 대회로 진행된다.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를 포함하여 국내외 유명 격투게임 프로게이머들이 다수 출전하여 뜨거운 명승부와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게임업계, 응원한다”... 비공식 방문 격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자사게임, 로스트아크 모바일 체험

“다들 열심히 했다.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지스타 2023 현장을 비공식 방문해 이같이 언급했다.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3 첫 날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현장을 방문해 넷마블, 위메이드의 게임을 체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CVO는 이날 오후 3시경 지스타 2023 B2C관에 방문했다. 권 CVO는 우선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지'를 체험했다.

현장에는 송모현 위메이드 COO와 석훈 이미지 위메이드 PD가 체험하고 있는 권 CVO 옆에서 게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권 CVO는 넷마블의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을 체험했다. 마찬가지로 김남경 사업 본부장과 구도형 넷마블 에프앤씨 PD가 체험하고 있는 권 CVO 옆에서 게임을 설명했다.

권 CVO는 앞서 위메이드, 넷마블 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까지 각사를 대표하는 게임을 체험한 후 자사게임인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체험했다.

권 CVO는 현장에서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정식 출시 일정이나 목표를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지스타2023에 참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지스타 현장을 방문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한 모든 게임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창업자로 현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CVO,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CVO를 겸하고 있다.

권 CVO는 크로스피어를 개발한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로스트아크를 개발한 스마일게이트 RPG,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등 대부분의 게임 개발에 관련된 자회사는 모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실제 권 CVO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한국 50대 자산을 순위에서 51억 달러(6조 7800억 원)로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부호다.

/최빛나 기자

“이용자와 함께 소통해 좋은게임 만들 것”

9년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엔씨' 각 게임 개발자 무대에서 게임 소개 슈팅 'LLL' 등 신작 3종 시연 부스

엔씨소프트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진행하고, 작품 7종을 공개했다.

엔씨(NC)는 각 게임의 개발자가 직접 무대에 등장해 게임을 소개하고,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했다. 지스타 작품작을 총괄하는 최문영 PDMO(수석개발책임자)는 "지스타에서 다양한 장르,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 위해 모든 개발팀과 엔씨(NC) 전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개발 과정을 이용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엔씨(NC)는 ▲슈팅 'LLL'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BATTLECRUSH)'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프로젝트 BSS' 등 신작 3종의 시연 부스를 운영한다

LLL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넓은 월드에서 많은 이용자가 함께 플레이하는 '오픈월드 다중접속(MMO) 슈팅' 장르 게임이다. 배재현 시더(Seederr)는 신규 트레일러를 소개하며 "다양



배재현 Seeder가 오프닝 스피치에서 신규트레일러를 소개하고 있다/엔씨소프트

한 무기·스킬 조합과 함께 자유롭게 오픈 월드를 누빌 수 있는 것이 LLL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배틀크러쉬는 '난투형 대전 액션' 장르 게임이다. 엔씨가 닌텐도 플랫폼으로 선보이는 첫 신작으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형석 캡틴은 "무너지는 지형을 피해 안전지역으로 돌아오거나 강력한 공중 공격으로 상대를 날려버리는 등의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다"며, "전략적인 팀 구성과 아이템 획득을 통해 최후의 1인이 되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BSS는 '블레이드 & 소울'의 세계관을 활용해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로 재해석한 신규 IP다. 고기환 캡틴은 "수집형 RPG 장르 본연의 재미를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월드 환경에 최적화된 액션과 모험으로 담아냈다"며, "단순 스펙 위주가 아닌 전투 환경과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전략적인 '팀 조합'의 재미와 수집과 조합의 묘미를 극대화하는 '전술 전투'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TL은 12월 7일 출시를 앞두고 지스타 현장에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18일 오후 1시 안종욱 PD가 MC 정소림, 박상현과 함께 무대 행사를 진행한다. ▲1인 던전 ▲6인 파티 던전 ▲길드 레이드 등 최근 변화를 단행한 TL의 핵심 콘텐츠 시연을 볼 수 있다. 지스타 기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빛나 기자

尹 “韓, 글로벌 게임시장 선도 힘쓰겠다”

“국제 경쟁력 갖추는 것 목표”

게이머들의 최대 축제 '지스타2023'에 함께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게임 콘텐츠 제작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3 개막식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애정과 진심으로 지스타는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국제 게임 엑스포로 거듭나고 있다"며 "게임 산업은 디지털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엄청나며 특히 영상과 음악, 스토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집약된 종합 문화예술로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e 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김관우 선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4개의 메달을 획득



윤석열 대통령이 지스타2023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최빛나 기자

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며 "정부는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부터 제도 개선까지 든든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시 이날 열린 '2023 대한민국 게임 대상'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국 게임이 전세계 시장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 쓰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14년 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서 가슴이 벅차고 놀랐다"며 "그만큼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게임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